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주택 / 아파트 / 상가 / 사업체 전문

REALTOR **데이빗 전**  
**(714)309-2355**

#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 전 당 포

LC3019-0990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 “미국 증시 더 떨어진다”

뉴욕증시 급락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여파로 뉴욕증시가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아직은 하락세 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뉴욕증시 하락세가 조만간 탄력이 붙으며 급격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2차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1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파이낸셜뉴스'가 CNN비즈니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전날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미국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연초 투자자들의 낙관이 시장상황과 세계 경제전망의 괴리를 촉발했다면서 미국 주식을 비롯한 일부 금융자산은 고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200

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등 0.8% 안팎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국 주가의 고평가 지적은 앞서도 이어진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모든 중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면 뉴욕증시가 4% 더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세계 경기둔화세, 여기에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협정도 맺지 않은채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주시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그동안 잠잠했지만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브렉시트 강경파가 약진함에 따라 현실성이 부쩍 높아졌다.

마켓워치는 뉴욕증시가 주가 급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며 급격한 주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 미국, '젊은 CEO' 줄었다

미국 주요 상장기업 사이에서 지난 10년 새 젊은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추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최근 지난달 1일까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편입된 상장기업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CEO들의 연령 중간값(Median)은 58세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S&P500 기업 CEO 493명 가운데 50세 미만은 28명으로 6%에 불과했다. 이 중 30대는 페이스북 설립자 마크 Zucker버그(35)를 비롯해 34세에 김코 리얼티의 CEO 자리에 오른 코너 플린(38) 등 두 명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전히 미국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가 대기업 리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X세대(1965~1980년생)는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업리서치 업체 에퀴라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50세 미만 CEO 비율은 2009년 말 약 16%에서 지난해 말 약 7%로 떨어졌다.

변화의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헤드헌팅 업체인 스펜서 스트루어트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취임한 S&P500 기업 CEO의 평균 나이는 54세로 전년 대비 5세 젊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우세하다.

텔라웨어대 와인버그 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찰스 엘슨 소장은 많은 기업이 나이 많은 CEO는 경험으로 단련된 반면 젊으면 다소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이 많은 CEO를 고른다고 설명했다.

### “아마존, 제2본사 뉴욕 미련 못 버렸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뉴욕 맨해튼에 대규모 업무공간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연합뉴스'가 뉴욕포스트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시애틀에 본사가 있는 아마존은 지난해 제2본사(HQ2) 부지로 뉴욕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와 워싱턴DC 인근 내셔널랜딩 2곳을 각각 선정했지만, 이 가운데 '롱아일랜드 제2본사' 계획을 전격 철회한 바 있다. 뉴욕 일대의 집값 상승을 우려한 일부 지역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조치였다.

그렇지만 미 동부의 핵심 거점인 뉴욕에 업무공간을 확장해야 하는 현실 탓에 또 다른 공간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포스트는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마존이 맨해튼 웨스트사이드 지역의 신축 빌딩을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맨해튼의 새 랜드마크로 떠오른 '허드슨야드'와 맞붙은 미드타운 지역으로, 아마존은 최소 10만 제곱피트의 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트리버를 사이에 두고 맨해튼을 마주 보는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와는 달리 맨해튼 핵심부에 곧바로 거점을 두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별도로, 아마존은 뉴욕의 유서 깊은 건물인 연방우편서비스(USPS) 빌딩에 대해서도 임대공간을 물색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아마존은 현재 뉴욕시에서만 약 5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아마존이 퀸스와는 작별했지만, 뉴욕에는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Commercial & Residential 부동산 투자 및 1031 Exchange 도와드립니다.

**Home for Sale!**

<p><b>Fullerton</b> 3 Beds + 2.5 Baths 1,720 Sq.Ft. 1990 년생 / HOA \$210 넓은 Private Backyard 2 Car attached Garage Association Pool &amp; Spa 새로 리모델링 한집 <b>\$659,000</b></p>	<p><b>La Mirada - Somerset Gated Community</b> 3 Beds + 3 Baths plus LOFT 1577 sq.ft. (단독주택) Private Backyard La Mirada &amp; Westridge 골프장 근방 <b>\$669,000</b></p>	<p><b>Long Beach - 가정집</b> 3 Beds + 2 Full Baths 1947 sq.ft. 5304 sq.ft. (LOT) *SKYLINK 골프장 근방 *PRIVATE POOL *GATED RV PARKING <b>\$765,000</b></p>
<p><b>LA MIRADA - CONDO</b> 아주 조용한 단지 3 BEDS + 2.5 BATHS 1964 SQ.FT. END-UNIT <b>\$549,900</b></p>	<p><b>Diamond Bar *최고 학군</b> 3 Beds + 2.5 Baths 1,401 sq.ft. *Association Pool &amp; Spa *Water &amp; Trash Included 2 Car Attached Garage END-UNIT <b>\$545,000</b></p>	<p><b>Fullerton (SFH) PANORAMIC VIEWS</b> 6 Bed + 4 Full Bath / 4,227 sq.ft. / 20,165 sq.ft (Lot) * SWIMMING POOL * 5 GATED PRIVATE PARKINGS * CIRCULAR DRIVE WAY * MINI TENNIS COURTS <b>\$1,490,000</b></p>
<p><b>Anaheim - Anaheim Shore 가정집 (단층/Detached)</b> 2 Beds + 2 Full Baths + Den (3rd BEDROOM) + Office 1,741 sq.ft. 4,951 sq.ft. (Lot) Association Pool &amp; Spa plus 5 ACR Private Lake <b>\$589,000</b></p>		

**ONE GROUP REALTY**  
www.OneGroupRealty.com

**찰스 SELL OC HOMES**  
짧은 시간안에 최상의 가격으로 **집** 팔아드립니다!

**독점 이달 고급 핫 매물!!! 독점**

<p><b>Fullerton Amerige Heights 가정집</b> 4 Beds + 3 Full Baths 2,799 sq.ft. 4,500 sq.ft. (Lot) Fishler (K-8) Sunny Hills High School 2003년도 Built <b>\$925,000</b></p>	<p><b>Irvine Oakcreek 가정집 (Gated 단지)</b> 4 Beds + 3 Full Baths 3,328 sq.ft. 4,293 sq.ft. (Lot) Oakcreek / Lakeside Woodbridge School 2000년도 Built <b>\$1,350,000</b></p>
<p><b>Santa Ana - Mix Use Commercial Retail / Medical Building</b> 5,440 sq.ft. 9,583 sq.ft. LOT FENCED Parking Lot *There are 3 Tenants (Month to Month Lease) <b>\$1,520,000</b></p>	
<p><b>Fullerton 단독 Building</b> 9,230 SQ.FT. [MODIFIED GROSS LEASE] *HIGH TRAFFIC COUNTS - COSTCO 맞은편 *BUILDING SIGNAGE AVAILABLE *WAREHOUSE SPACE &amp; 2 DOCK *FURNITURE STORE, DISCOUNT STORE, MATTRESS STORE, APPLIANCE STORE, etc. <b>99¢ per sq.ft.</b></p>	